



마음 하나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모두가 뒤바뀌집니다

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자기 마음에서 나오니까 자기 마음인 줄만 아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마음이 부족합니다.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살 때 인연 지은 악업 선업의 그 생명체들이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몸속에 다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인연이 돼서 말입니다. 한 덩어리에 있죠, 그런데 그 한 덩어리가 컴퓨터라면 바로 그 덩어리 속에 의식들이 잠재하고 있어요. 잠재하고 있다가 살아나가는 데에 차례차례로 생각을 내게 해서 애고도 오게 하고 불만도 생기게 하고 싸움도 하게 하고 병고도 생기게 하는 그 가지가지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. 그런데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거, 안에서 천차만별로 일어나는 거, 그것을 마음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게 아닙니다. 여러분 마음은 우주에 직결이 돼 있고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는 바로 한 마음의 주인공입니다. 그 주인공 속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경험과 체험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. 해(善)가 오는 것도 알고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잘 알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잘 압니다. 알고 있는 이마음이 각자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.

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의식들이 자꾸자꾸 나오게 되면 그 마음을 거져서 나옵니다. 나오는 구멍은 한 구멍이기 때문이죠, 들고 나오는 구멍이 한 구멍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의 그 몸속에 있는 생명의 의식들이 바로 악업 선업을 지은 장본인들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나오면 그저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줄 아시지만 내 마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. 내 마음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잘된다는 것도 알고 전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.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그 마음속에 있고 모두 다 잘 아는데, 그 아는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잠재해 있는 생명의 의식에 의해서 행을 하고 있거든요. 이 뜻을 헤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?

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게끔 이러한 말을 항상 해 드리고, 마음의 선장이 있고, 그 선장에 의해서 의식들이, 자생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런 소립니다. 그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내 마음을 거치면서 나오는 것을 항

상 마음의 선장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건 잘 알고 속아서 항상 그렇게 해매고 있다는 얘깁니다. 마음 하나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모두가 뒤바뀌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참담하게 잘 돌아갑니다. 빛보다도 더 빨리 지구도 돌아가고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여기에 놓여진 이 겁자체도 이 책상도 모두가 다 지금 실재없이, 눈에 보이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

여러분은 그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을 진짜인 줄 알고 항상 나오는 대로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시는데, 거기에서는 내가 인연 지은 대로, 즉 말하자면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이 나오니,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.

그 모든, 즉 말하자면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업보성세균성인과성, 이 전체가 바로 내 악업 선업 지은 그 자체에 들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 쉴 사이 없이 안팎에서 자꾸 나오는 것을, 나오는 대로 속고 자꾸자꾸 꼬달리신다 이겁니다.

그러니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꼬달리게 하는 그 마음을, 잘 나오는 거든지 못 나오는 거든지, 잘 나와서 잘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하게 마음의 선장에 놓고, 잘 안 나오는 것은 '잘 나오게 하는 것도 선장에 달려 있으니까 당신만이 잘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나오게 할 수 있다.'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은

맡겨 놓으면 맡겨 놓는 대로 의심을 하고, 또는 맡길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. 여러분의 마음의 선장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. 그런데 선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선장이 아닙니다. 진짜 그 좋은 생각과 알 수 있는 마음, 심안으로 볼 수 있는 마음,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마음,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마음, 남의 속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, 자기가 부모의 몸을 빌려서 영원함과 더불어 형성됐다는 앎을 속명통이라고 한다면 그 다섯 가지 속에서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된 것처럼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 몸속의 그 의식들이 컴퓨터에 입력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.

'나오는 것처럼' 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.

이거 들으실 때는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. 무조건 내 마음의 선장은 그 모든 걸 알고 보고 듣고 하지마는 바로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입력된 대로 나오기만 하는 겁니다. 그러니 선장에 의해서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다가 모든 걸 맡겨 놓으시라는 겁니다. 그 안에서 병이 났으니까 그 안에서 고쳐야 하고, 그 안에서 애고를 내보낸 거니까 그 안에서 애고를 처리해야 하고, 모든 것은 다 그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. 이해가 가십니까? 대답이 안 나옵니다. 하하하...

대중: 네!

큰스님: 지금 우리에게서 생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속에서 뛰어야 합니다. 지금은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순응해서, 즉 말하자면 내 마음속으로 두뇌 즉, 뉴진을 굴려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. 시대에 따르면서 한생각을 해서 뭘 때에 천 리를 뿔 수 있고 만 리를 뿔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여러분은 그 내용을 모르시지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,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해 드리고, 이 자리에 앉아서도 자기 집을 갔다 올 수 있다고요,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자기 집에 갔다가 한꺼번에 보고 오실 수 있죠? 내 육신이 움추려지지 않고도 집에 갔다 올 수 있듯이 무엇이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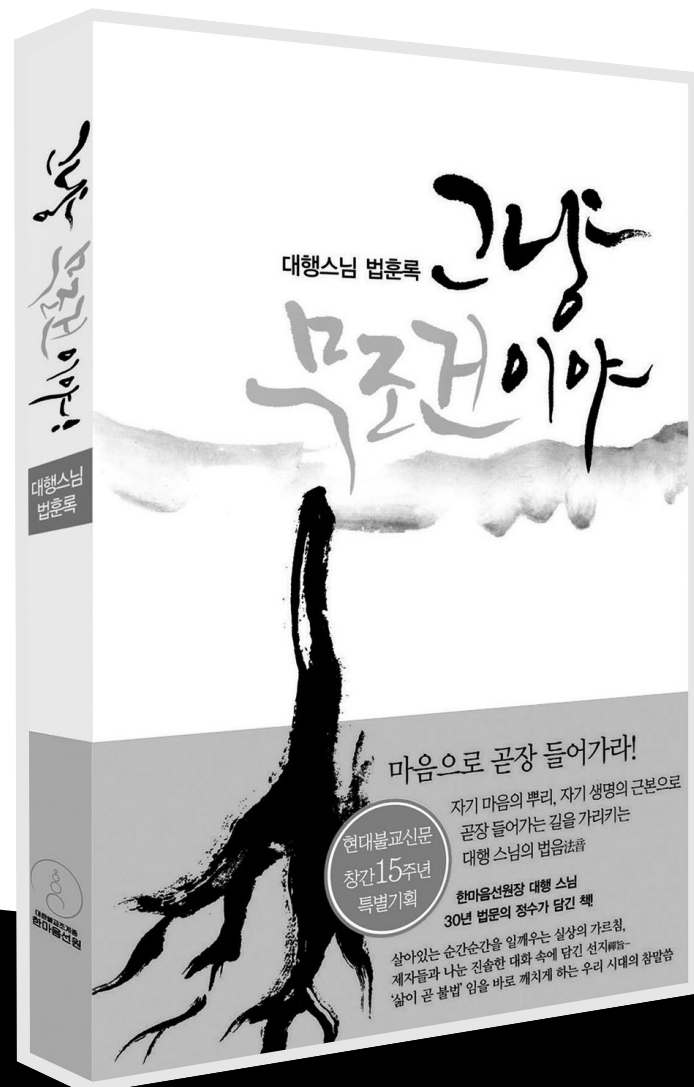
그런데 마음의 눈이 떠지지 못하고 마음의 귀가 뜨이지 못해서, 지금 여기서 자기 집에 갔다 오는 것처럼 어디든 그렇게 갔다 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세히 보고 오실 수가 없는 거죠. 갔다 온다 못 갔다 온다 이런 것도 없고, 지금 집에 갔다 오시는 데는 내가 '갔다' 하고 말할 수도 없고 '왔다' 하고 말할 수도 없고, 그냥 한참만에 내가 그냥 한 번 깜짝하니깐 그냥 갔다 오게 되고 알게 되더라 이런 거와 똑같이, 심안이 뜨이면 일체를 다 우주와 더불어 같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, 이 공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그렇고 일체제불도 그렇고, 모든 천백억화신

30면으로 계속

그림 · 최주현



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!



자기 마음의 뿌리,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
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
대행스님의 법음 法音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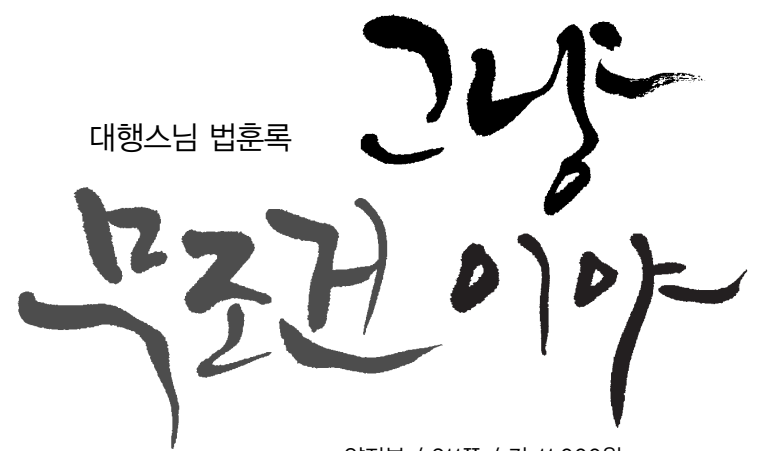
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-
'삶이 곧 불법'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

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.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.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.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,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.

- 본문 중에서

주문은 현불삼!
02)2004-8216

농협 053-01-269062
(주)현대불교신문사



양장본 / 211쪽 / 값 11,000원